고흥군, 영농현장서 이뤄지는 소통행정

송귀근 군수, 들녘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힘든 시기 농민 대화통해 고충 이해 · 해결"

고흥군은 바쁜 농번기철 일손부족과 대외활동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며 군수가 농촌 들녘을 직접 찾아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흥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선제적 대응으로 산지폐기(61.5ha/16억5천9백만원), 대형유통업체 납품(22만단/13억원 상당)하여 산지 마늘 가격을 1,000~2,000원 상승시키는 효과 거양과 고온피해(벌마늘) 마늘에 대한 정부재해 보상지원을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것.

이에 송귀근 군수는 농어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농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군민의 주 소득원인 마늘(1,235ha/19,000톤)에 대한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고, 지난 3일에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내기 현장을 찾아가 모내기 이양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풍년을 기원하였다.

금년 고흥군의 벼 재배 예상면적은 11,538ha(생산량 75,653톤 예상)로 전남의 7.54% 해당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찾아가는 들녘 행정' 을 추진하여 힘든 시기에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농가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정착시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여수시, 대학생 행정인턴 165명 모집

16~17일 신청…한 달간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

여수시는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희망자 165명을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수당은 여수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일 66,150원이며 만근 시 1,786,050원이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시청, 보건소, 주민센터 등 시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16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가능하다. 단, 대학원생과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평생교육원생과 기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계획인원 165명 중 우선대상자 56명, 일반대상자 90명, 도서 · 외곽지역 희망자 19명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우선선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녀이다.

서류접수는 진남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 3층 제2강의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aelonge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과(061-659-36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기간 중 대학생들이 행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순천시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최근 화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개정이 이루어 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한 경우 '관내 개장유골'에 한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초 제2봉안당의 신축 준공으로 18,000기의 봉안 공간을 확보하였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자격기준상 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관내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사용료 부담을 줄여 장묘시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했다. 매장의 경우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가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봉안당은 최초 사용기간 15년에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줄여 사용기간을 45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신청 시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사용 마감되는 2065년에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해 사용기간을 단축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모호했던 희생 · 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정해 명확히 했다.

이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2020. 7. 1.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덕분에 배지' 달아주며 격려

군내버스 외부광고 시행 병행

김철우 보성군수는 4일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덕분에 배지'를 달아주며 격려와 응원을 메시지를 전했다.

'덕분에 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사와 자부심의 의미의 수어 동작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코자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김 군수는 "유례없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힘들고 지치겠지만 무사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군내버스 외부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활방역과 개인위생 지키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부서와 읍 · 면에서 '고마워요!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공직자, 매실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12일까지 400여 명의 직원 참여… 농가에 힘 보태

광양시는 매실 수확기에 지역 내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청 43개 부서 400여 명이 12일까지 7개 읍면의 매실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매실 농가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힘들었는데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 너무나도 고맙다"고 전했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농업지원과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관 · 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